

류현진, 11승 무산에도 '명품' 체인지업 빛났다

보스턴 강타선 상대로 12타자 연속 범타...7이닝 2실점 호투
4-2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 내려갔지만 불펜진 난조로 승리 날아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의 팔색조 투구가 빛이 바랬다.

류현진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8피안타 1볼넷 6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이날 류현진은 4-2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가 시즌 11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불펜의 난조로 승리가 날아가버렸다. 시즌 평균자책점 역시 1.78로 조금 높아졌다.

류현진은 지난해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았다. 그러나 좌완 에이스 데이빗 프라이스가 이끄는 보스턴에게 패배를 맛봤다.

이날 '리턴 매치'는 설욕의 기회였다. 절치부심한 류현진은 93마일(150km)에 이르는 빠른 직구와 투심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브를 앞세워

효과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특히, 보스턴 타자들은 유리한 카운트에서 나오는 류현진의 체인지업에 당했다. 류현진은 적극적인 보스턴 타자들의 스윙을 유도하는 유인구로 호투를 거듭했다.

류현진은 1회말 2점을 내줬다. 다저스의 영성만 내야진은 류현진이 끊임 없이 땅볼을 유도해도 좀처럼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했다.

기분 나쁜 실점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류현진은 침착했다. 2회부터 포심·투심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을 절묘하게 섞어 보스턴 타자들의 타격 타이밍을 흔들었다. 특히, 스트라이크존을 관통한 패스트볼 뒤에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은 명불허전이었다.

3회 맞혀 잡는 피칭으로 투구수를 줄인 류현진은 4회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조합으로 앤드루 베네티를 3루수 땅볼로 잡아냈다. 이어 마이클

차비스를 상대로는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이끌어냈고, 브래들리를 상대로는 패스트볼을 3구 연속 보여준 후 느린 커브로 허를 찔러 삼진을 잡아냈다.

류현진은 1회 2사후부터 5회 2사까지 12타자 연속 범타 행진을 펼치기도 했다. 5회부터는 간간히 커브를 섞어 던져 타자들의 급한 마음을 흔들었다.

류현진은 6회부터 7회까지는 패스트볼 위주의 피칭으로 보스턴 타선을 흔들었다. 체인지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류현진은 시종일관 강력한 보스턴 타선을 상대로 영리한 피칭을 한 후 마운드를 내려갔다. 7회에도 93마일짜리 패스트볼을 던질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다.

때문에 8회 페드로 바에즈가 젠터 보가츠와 J.D. 마르티네스에게 허용한 백투백 홈런은 더욱 아쉬웠다.



LA 다저스 류현진이 14일(현지시간)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말 투구하고 있다.

김세영, LPGA 마라톤 클래식서 우승...시즌 2승

한국선수들, 올시즌 19개 대회서 9승 합작 저력 과시



김세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세영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장(파 71)에서 열린 대회 4

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를 쳐 6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2언더파 262타를 친 김세영은 시즌 2승째이자 LPGA 투어 통산 9승을 달성해 10승 고지를 눈앞에 뒀다. 우승상금으로 26만2500달러

(한화 약 3억1000만원)을 받았다.

김세영은 한국선수 LPGA 투어 다승 순위에서도 박세리(25승), 박인비(19승), 신지애(11승)에 이어 최나연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김세영의 선전으로 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19개 대회에서 9승을 합작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2번홀에서 첫 버디를 기록한 김세영은 이후 6번홀까지 파세이브를 했다. 7번홀부터 버디 행진을 시작한 김세영은 12번홀까지 5연속 버디를 잡아내 사실상 레시 톰슨(미국)을 따돌렸다.

톰슨은 마지막 날 이글 1개, 버디 6개, 보기 3개로 5타를 줄여 20언더파 264타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는 16언더파 268타로 3위에 올랐고, 이정은(23)은 14언더파 270타를 기록해 4위로 선전했다.

대회 첫날 깜짝 선두에 올랐던 전영인(19)은 9언더파 275타로 공동 11위에 머물렀다.

뉴시스

노박 조코비치, 5시간 혈투 끝에 페더러 꺾고 2년 연속 Wimbledon 우승

노박 조코비치(32·세르비아·1위)가 로저 페더러(38·스위스·3위)를 꺾고 2년 연속 Wimbledon 테니스대회 정상에 섰다.

조코비치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Wimbledon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4시간 57분간의 혈투 끝에 페더러를 3-2(7-6(7-5)) 1-6 7-6(7-4) 4-6 13-12(7-3))로 꺾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이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조코비치는 올 시즌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Wimbledon에서는 2011, 2014, 2015, 2018년에 이어 5번째 우승이다. 호주오픈 7회, 프랑스오픈 1회, US오픈 3회를 더해 개인 통산 메이저대회 단식 우승 횟수는 16회가 됐다.

역대 메이저대회 단식 최다 우승 순위에서 페더러가 20회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라파엘 나달(33·스페인·2위)이 18회로 2위, 조코비치가 3위에



올라왔다.

조코비치는 페더러와의 상대전적에서 26승22패로 우위를 이어갔고, 2016년부터 4연승을 달렸다. Wimbledon에서도 3승1패로 계속 앞서가게 됐다.

페더러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만37세11개월로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최고령 메이저대회 남자 단식 우승 기록을 세울 수 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프로축구 K리그1 100만 명 돌파...전년비 두달 이상 빨라

2019 프로축구 K리그1(부리그) 입장 관중이 14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작년보다 2개월 반이나 빠른 흐름이다.

15일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14일 기준으로 K리그1 1~21라운드까지 총 125경기 만에 102만2082명이 입장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2개월 16일 빨리 100만 관중을 돌파한 것이다.

경기 수로는 61경기를 앞당겼다. 최신식 홈구장 DGB대구은행파크 시대를 맞은 대구FC가 시즌 초반 흥행몰이를 담당했다.

또 전북 현대의 독주 체제가 주춤한 K리그 흥행 면에서는 도움이 됐다. 울산 현대, FC서울 등 강호들이 전북을 위협하며 선두 경쟁에 뛰어 들었다.

전북이 21라운드까지 13승6무2패(승점 45)로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2위 울산(승점 44), 3위 서울(승점 42)의 추격 가시권이다. 특히 울산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일정 때문에 한 경기를 덜 치렀다.

뉴시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참새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